

新鮮食品의 需給문제

—채소·과실류를 中心으로—

金 成 勳

(中央大農大教授)

- I. 菜蔬·果實類의 需給基調
- II. 菜蔬 果實類의 需給動向
- III. 青果物價格動向의 核心
- IV. 青果物流通의 現況과 問題點
- V. 青果物의 需要豫測과 對備
- VI. 몇가지 提言

I. 菜蔬·果實類의 需給基調

新鮮食料品으로서의 채소 및 과실류가 갖는 공급상의 特徵은 첫째 氣象條件과 生育期間의 制約을 받아 생산공급이 季節性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點과, 둘째 腐敗變質性이 강하여 收穫후 장기간의 保全이 어렵고, 鮮度維持가 곤란하다는 點, 셋째 工産物이나 穀物과는 달라 一定한 크기, 重量, 水分, 영양가 및 成熟度등 品質의 均一性을 保持하기 어렵다는 點, 끝으로 청과물 그 自體가 갖는 實重量과 容積에 비하여 賣買價格이 相對的으로 낮아 遠거리 輸送이 자칫하면 非經濟的이 되므로 長期貯藏의 經濟性이 낮다는 點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들 新鮮食料品에 대한 需要는 계절에 관계없이 年中 均等할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發展上 所得彈力的(income elastic)인 需要性格을 나타내고 있는데 都市家口에 있어 대개 채소류가 0.51~0.69, 과실류가 1.02~1.34인 것으로 計測되고 있다.¹

위와 같은 청과류의 供給과 需要上的 갈등은

必然的으로 季節的인 需給不均衡現象을 빚기 마련이고 나아가서 年次別 價格振幅을 불러들이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채소 및 과실류의 생산이 대부분 多數의 零細 非專門農家에 의하여 半自給 半商業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生産 및 流通樣式이 生計의 일 수 밖에 없으며 出荷期의 洪水出廻현상과 端境期의 物量不足현상이 增幅 加重되는 傾向을 나타낸다. 근년에 이르러 농업전반의 栽培技術向上에 의하여 비닐 하우스 등 冬期채소공급이 擴大되고 있으나 아직 채소나 과일을 專業的으로 재배하는 農家は 全體農民의 6%이내에 不過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채소과실류 농업에 있어서 半自給的 商品生産이 普遍化 慢性化하게 된 背景에는 이렇듯 그를 專業化하기에는 危險과 不確實(risk and uncertainty)에 따른 損失負擔이 너무나 크다는데 기인한다. 채소 과일류의 生育期間을, 큰 經濟的 費用을 수반하지 않고 自由自在로 調整할 수 있거나, 氣象狀態 등 자연조건을 어느 정도 容易하게 控制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러기 前에는 根本的으로 수확기의 價格暴落과 端境期의 價格騰貴現象의 반복은 不可避하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이나 英國, 西獨 등의 先進國에 있어서는 이들 季節性이 농후한 新鮮食料品의 價格은 經濟指標 資料로서는 조사대상의 基本分類에서 除外하고 있으며, 대신 別途의 獨立된 價格加重體係下에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집계 分析하고 있다.

물론 적당한 貯藏 및 加工施設의 擴充과 市場情報 및 農業觀測(agricultural outlook)사업에 의해 季節의 需給不均衡 현상은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6월로 부터 11월에 걸쳐 收穫시기가 集中되어 있는 각종 청과물의 洪水出廻에 임하여 稼動시킬 수 있는 貯藏 및 加工施設은 모두 합쳐 보아야 청과류 國內總生産量の 3% 内外에 不過하다. 低溫貯藏施設이라고 하더라도 사과 5,100 t 배 450 t, 감귤 2,000 t, 其他 5,400 t 都合 12,950 t 分(3會社) 밖에 되지 않는다. 채소류의 저온저장은 현재 양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며 全國의 靑果類 加工工場은 모두 63個所나 되지만 1日處理能力은 合計 690 t에 不過하다.²

게다가 客觀的인 強力한 組織體(外國의 경우 대부분 政府)에 의한 適切한 市場情報 및 農業觀測制度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한해의 價格이 좋았을 경우 그 다음 해에는 너도 나도 다투어 擴大栽培함으로써 出荷 洪水를 낳게 되고 그 익년에는 다시 모두 減産함으로 인하여 價格이 등귀하는 現象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年次別 騰락현상이 큰 品目으로서 배추, 무우, 양파, 수박, 참외, 마늘, 딸기 등을 들 수 있다. 채소 과일류가 集結되는 서울 龍山도매시장에는 出荷期면 흔히 렬값에 貨物車 運賃도 견지지 못한 出荷主가 도망가버리는 事態가 非一非再하다. 이와 같은 不幸한 經驗을 겪은 그 農民이 이듬해 청과류의 재배를 忌避 또는 減産한 다해도 하나도 異常할 것이 없다. 채소청과류의 生産農民의 哀歎이 해를 걸러 交錯되는限 新鮮食料品の 安定的인 需給均衡이 根本的으로 成就되기를 가까운 時日안에 크게 期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註1) 金成勳, 成培永 外, 서울綜合都賣市場事業, KDI, 1978.

2) 더욱 자세한 수치는 農開公 및 農水産部資料를 참조할 것.

II. 菜蔬果實類의 需給動向

일반적으로 新鮮食料品으로서의 채소 과일 등 靑果物에 대한 需要는 實質國民所得이 600달러線을 넘어 설 때 크게 높아지는게 先進各國의 消費 추세이다.¹

70年代 後半에 들어서 우리나라經濟가 質的으로 크게 擴大됨에 따라 그동안 國民 1人當 靑果物需要가 年平均 6.8%씩(채소 5.6%, 과일 11.77%) 增加해 오던 것이 최근에는 8.8%(채소 7%, 과일 13.2%)나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77年 현재 靑과물 消費量은 國民 1人當 食品供給量の 24.2%, 都市家計 食品支出費의 2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國民 1人當 靑과류 消費規模는 1977年 현재 채소류가 93.4kg, 과일류가 18.6kg 水準이 되었으며, 그 중 서울家口의 1人當 소비량은 채소류가 127.3kg, 과일류는 52.3kg으로서 全國 1人當 소비에 비하여 각각 35%가 더 많은 뿐만 아니라 그 增加趨勢도 훨씬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채소 과일등 靑果物은 최소한 都市消費者의 觀點에서 보면 國民食生活에 있어 可謂 必須品의인 性格을 띄고 있으며, 그 消費規模는 이른바 所得水準의 尺度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需要패턴도 高級化되어 예전 같으면 一流호텔의 洋食部에서 볼 수 있었던 세러리, 파셀리, 피만, 레타스 등 高價채소류가 이제는 行商人의 리어카 木板을 어긋이 장식할 정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채소류 생산량의 65%는 배추, 무우이며, 사과 배, 복숭아가 과일 생산의 75%나 된다.

앞으로 1人當 消費規模는 지속적인 所得向上과 더불어 채소류의 경우 매년 3~4%, 그리고 과일류는 6~8%씩 增加될 것이 豫測된다². 즉 채소류는 1981년에 109.6kg, 1986년에 127.3kg, 1996년에 160kg으로 증가될 것이며, 과일류는 1981년에 25.5kg, 86년에 35.5kg, 그리고 96년에 64.6kg으로 늘어날 展望이다.

그리하여 人口增加效果를 감안할 경우 채소 및 과일류의 生産은 현재규모의 9~13% 이상씩 매년 增加되어야 하며, 재배품종도 더욱 高價品 위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事實 최근까지의 靑果物 生産量은 全體의으로는 滿足할만한 增加率을 나타내어 年平均 12.1% (그중 채소류는 10.8%, 과일은 22.2%)의 成長率을 보였으며 1976年 現在 全體農業生産額의 13%라는 比重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채소류는 1962년의 1.3百萬 t에서 1976년에 3.2百萬 t으로 늘어났으며, 과일류는 同期間 19萬5千 t에서 61萬5千 t으로 增加하였다. 이와 같은 靑과류 生産의 增加현상은 植付面積의 變化에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데 1962년에 對比 1972년에 채소재배면적은 2.3배, 그리고 과일류는 3.4배가 늘어나 農作物總植付面積의 11%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채소류는 京畿, 慶南, 慶北, 全南 등 4個道에서만 전국 생산량의 67.2%가 공급되고 있으며, 과일류는 慶北 忠南, 忠北, 慶南 4個道에서 全國의 72.3%가 생산되고 있다.

靑과류의 輸出入統計를 보면 1977年 현재 輸入總額은 6.4百萬 달러였으며 그중 3分の 2가 熱帶性 과일인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었으며 輸出總額은 91.7百萬달러로서 각종 채소 및 과일통조

림, 버섯, 乾양파, 사과, 배 등이었다. 特記할 사항은 1977年 가뭄에 따른 凶作때문에 고추와 마늘이 輸入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1978年中에 약 2千 t의 마늘과 1,200 t의 고추를 수입할 計劃을 執行中이다.

그러나 土地利用度面에서나 장차 野山 및 干拓擴張과 밭 灌溉(水利)事業의 擴充計劃을 감안할 때 價格 및 流通條件의 安定性이 保障만 된다면 채소 및 과일류의 自給調達에 관한 限 하등의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斷定할 수 있다. 專門家들은 現在의 土地 및 水利條件下에서도 價格條件여하에 따라 現生産規模의 2倍 以上の 增收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診斷하고 있다. 問題는 現行의 靑果物 流通構造가 여하히 專門의 新鮮食料品の 生産 供給을 保障할만큼 가까운 時日안에 改善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註 1) FAO, Marketing Fruits and Vegetables, 1970
FAO, Planning of Urban Wholesale Markets for Perishable Food, 1976

2) 이는 過去 10年間 1人當 소비추세에 대한 回歸分析의 結果 豫測된 수치임, 資料: KDI 前揭書.

Ⅲ. 靑果物價格動向의 核心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靑과물가격은 원 칙적으로 新鮮食料品이 갖는 特性에 연유한 需給調整의 困難性和 流通構造의 脆弱性으로 인해 季節的 年次의 不安定性을 그 자체에 內包하고 있다. 특히 增大된 生産과 消費間을 連結하는 流通이라는 파이프 라인(pipe line)이 零細할 때 價格不安定은 더욱 高潮된다.

過去 15個年(1963—77)의 農家受取價格의 變動狀況을 보면 채소과일류의 경우 米穀이나 他 農산물에 비하여 不安定한 上昇勢를 보일 뿐만 아니라 훨씬 낮은 次元에서 形成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여 年中 價格振幅이 크고 年次別 價格

振幅도 큰 起伏을 보이면서 上昇하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하여야 한다. 어느 한해가 크게 올랐으면 그 다음 해에는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오르는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배추와 무우의 價格은 1966년에 크게 올랐다가 67年엔 떨어지고 68年엔 다시 오르고 하는 式으로 해마다 振幅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年度內에 있어서도 月別價格振幅이 두드러져 價格變異係數 (coefficient of variation)가 마늘과 양파의 경우 각각 39%와 23.3%, 시금치, 배추, 무우 등이 18% 內外, 사과와 배가 6~8%의 變異를 나타낸다. 年中振幅率은 마늘이 195.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양파, 배추, 시금치의 순서이었다. 이를 다시 月別로 보면 배추와 무우의 경우는 3월에 最高價格(指數上으로 169와 158)을 示顯하고 12월에 最低價格(指數로 32와 28)을 기록한 反面, 양파의 경우 수확기인 5~6月 가격이 최저로 떨어졌다가 이듬해 2~3月경에는 76~77年의 경우 10倍를 나타냈을 정도이다.

위와 같이 新鮮食料品の 價格變動이 유달리 큰 原因은 腐敗變質性, 收穫時期의 集中, 市場情報의 不完全性, 貯藏加工施設의 不備, 中間商人의 弄奸과 流通施設의 不備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經濟的 基盤이 취약한 零細農民으로서는 投機的 營農이라 할 專業的인 청과류生産을 감당하기에는 그 家族의 生計安定이 너무나 切實한 문제가 된다.

今年들어 봄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5,6月 경에 채소 청과류 價格이 6月末現在 지난해 同期에 비해 배추는 163%, 무우는 333%, 양배추 50%, 당근 -22%, 시금치 67%, 콩나물 27%, 감자 221%, 고구마 -11%, 밤 333%, 땅콩 5.5%의 變動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農產物價格(都賣價格)의 앙등에도 不拘하고 農民의 價格패리티는

1976年 以後 계속 惡化되어 그 指數가 93% 以下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여 도시에서의 農산물 都賣價格上昇이 農民의 所得增大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事實이다.

채소農家販賣價格의 變異係數 및 振幅
(1974~76年의 1~12月)

區	分	變異係數(%)*	振幅(%)**
사	과	5.6	25.1
	배	8.1	28.9
무	우	12.8	48.9
배	추	16.1	74.5
	과	11.6	41.5
마	늘	39.0	195.7
고	추	9.2	34.7
양	파	23.2	96.0
시	금치	18.7	69.1

年	도	도매 가격 지수			농가판매지수	
		적상품	과일	채소	과일	채소
1971		44.2	28.8	—	45.9	50.1
1972		52.9	35.9	—	49.6	51.4
1973		55.2	36.1	—	56.2	53.4
1974		73.8	59.6	—	79.4	68.7
1975		100.0	100.0	100.0	100.0	100.0
1976		117.8	130.4	150.2	111.2	125.9
1977		136.2	185.3	155.0	134.6	144.5
1978(5月)		165.6	266.4	266.3	158.8	187.7

$$*變異係數 = \frac{\sqrt{\frac{\sum(x-\mu)^2}{N}}}{\mu}$$

**年中 最低月の 價格對 最高月の 價格比率

資料:筆者, 靑果物流通시스템의 改善研究, 中央大, 1977.

가격구조의 취약성을 反證하는 사례로서 1978年 5月 현재 채소의 都賣價格指數는 266.3이었는데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80線臺에 머물렀으며 과일 都賣價格指數가 266.4일때 농가 販賣價格指數는 150臺를 겨우 웃돌았다. 이렇듯 채소 과일류의 價格의 上昇이 農家수준에서는 더디게 反映되고 都會地의 都賣價格에는 크게 作用하는 것은 端的으로 農산물 가격이 農民의 所得으로 直結되지 않으면서도 物價指數上엔 마치 先導品

인양 認識된다는 또 하나의 矛盾을 惹起시킨다.

이른바 物價當局이나 심지어 言論界의 一角에서 최근의 物價上昇(인플레이)이 마치 農産物의 騰貴에 의해서 主導된 것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다. 물론 指數上으로 보아선 農水産物이 도매물가의 17.9%, 消費者物價의 36.7%나 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가격상승이 物價指數의 波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實際 農家受取價格은 별로 向上되지 않고 있다는 現流通構造의 矛盾性과, 나아가서 指數上으로만은 농수산물 價格이 物價를 主導한 듯한 計數解釋上的 矛盾性을 동시에 목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住宅, 土地, 아파트, 비누, 설탕, 음료수 등 각종 非農産物의 폭騰現象도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인가. 高度成長 開發인플레이와 輸出인플레이에 의해 通貨流通이 범람하고 인플레이의 기미가 高潮될 경우 일반 消費者는 一次的으로 生必需品로서의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요를 確保하고자 서둘러 購買하게 됨으로 이와 같은 需要增大에 대하여 供給彈力性이 적은 농수산식품의 가격상승은 不可避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의 主犯인 通貨팽창과 需要爆發은 곧이어 他品目에까지 擴大되기 마련인데 이때 都賣物價나 消費者物價指數에 크게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農水産食品(住宅·아파트·土地는 非指數品目을 비교할 것)이 마치 物價상승을 主導한 것처럼 指數에 나타난 인플레이의 繼起的 現象을 政策當局者는 지수에 얽매인 表皮的 診斷을 통해 서슴치 않고 농수산물을 物價의 元뿔이라고 낙인찍는 奇現象이 우리나라에 年中行事처럼 반복되고 있다. 만일 日本이나 西獨, 英國처럼 經濟指標에 농수산물이 빠져 있었다면 무슨 品目を 들어 物價의 元뿔이라 했을까를 가정해 본다면 物價主導 수수

끼의 解答이 自明해진다. 그러나 채소 과일류 價格問題의 核心은 物價를 主導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收穫期の 價格安定과 端境期の 物量確保를 如何히 達成하여 生産者와 消費者의 收益을 共히 保護할 수 있느냐에 所在하고 있음을 直視하여야 할 것이다. 收穫期를 基軸으로한 季節的 年次的 價格 流通構造의 改善補完이 없는 여하한 政策—예컨대 輸入自由化와 端境期 價格統制措置는 國民經濟에 短期의 一時的 坎輅注射의 效果 밖에 없음을 過去の 經驗이 너무나도 如實하다.

IV. 靑果物流通의 現況과 問題點

生産行爲를 經濟發展의 「門」이라 한다면 流通行爲는 그 門을 여는 「열쇠」에 비유할 수 있다. 말하자면 流通部門은 生産과 消費라는 經濟發展의 二機能을 連結하는 파이프 라인에 該當하며 이 파이프 라인에 애로가 發生했을 경우 生産遲延현상이라든지 또는 價格波動과 같은 현상이 惹起되는 것이다. 파이프 라인에 生産物의 흐름을 增大시키고 需要變化를 生産增強에 원활히 媒介하는 接近方法이 오늘날 經濟發展計劃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價格 및 需給 문제가 클로즈업 되고 있는 채소 및 과일류 등 新鮮食料品の 流通構造는 複雜하고 零細하며 따라서 自然히 더디고 비싸게 치일 수 밖에 없다. 流通組織에 대한 정부당국의 發想도 先進國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生産基盤(infrastructure)으로 看做하는 것이 아니라 商行爲=營業行爲의 superstructure로 認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流通行政이 不在하다시피 되어 있고 流通投資도 미미하며 各種公課金과 料率만 높을 뿐이다.

靑果物 流通現況을 서울에 限定하여 調査分析

하여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 청과 채소류 價格形成의 根源地라 하여도 틀릴 바 없다. 1977年 現在 채소류가 최소 78萬t(그중 무우, 배추가 40餘만 t)以上, 그리고 과일류는 최소 18萬t 이상 서울에서 소비되었다. 이는 전국 채소, 과일류 總生産量의 30%에 該當하며 農家出荷 流通量의 38~45%를 오르내린다.

서울靑果物 都賣市場의 分類, 1977

	延 建 坪	建 坪	仲 買 人 數	推 定 去 來 量
中央都賣市場				
1. 서울청과	8,054 (30,102)	6,111 (21,595)	130 (103)	30,000 (16,000)
2. 동부청과	5,000 (16,700)	2,884 (7,345)	104 (55)	7,000 (3,600)
소 계	13,054 (46,802)	8,995 (28,940)	234 (158)	37,000 (19,600)
農協共販場				
3. 용산	1,230	1,042	57	16,000
4. 신촌	663	690	20	5,400
5. 영등포	2,336	1,840	70	15,000
6. 청량리	155	382	45	16,000
7. 중부	662	1,670	57	47,000
소 계	5,046	5,624	249	99,400
類似都賣市場				
8. 나진	8,532	9,221	349+ α	170,000
9. 비양	5,067	3,675	105+ α	85,000
10. 청량리	818	818	85	20,000
11. 신촌	1,800	1,700	50+ α	30,000
12. 영일	699	483	65	40,000
13. 동부	473	473	50	15,000
14. 경동	970	2,428	55+ α	15,000
15. 인왕	1,649	1,375	22+ α	10,000
16. 천호	3,374	1,426	77	15,000
17. 동서	860	950	67	15,000
18. 남대문	147	294	20	5,000
소 계	24,389	22,843	945+ α	420,000
합 계	42,489	37,462	1,428+ α	556,400

* 괄호안 숫자는 보고된 숫자임.
자료 : 金成勳, 현지조사, 1978.

그런데 이들 청과채소류를 취급하는 都賣市場 으로서는 名目上 서울特別市長이 開設主이나 實際로는 民間에 의해 施設, 運營되고 있는 두個의 法定都賣市場과 4個의 農協共販場 그리고 11個에 達하는 類似(未認可) 都賣市場이 있는데

서울市民이 1977年中 消費한 청과 채소류의 약 60%가 이들 都賣市場을 通過하였다. 이들 市場의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은 이른바 法定都賣市場(2個所)이 단지 6.6%, 農協中央會組織의 強力한 뒷받침을 받는 農協共販場(5個所)이 17.9%, 그리고 나머지 75.5%가 龍山과 靑涼里一帶에 散在해 있는 非法定 類似都賣市場(약 11個所)들에 의해 取扱되고 있다.

특히 菜蔬類의 경우는 거의 9割가량이 순전히 類似都賣商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龍山市場團地內에 자리잡고 있는 邦鎮, 太陽 두 市場이 서울청과류市場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소류供給의 主要 都賣處 구실을 하고 있다. 종건 싫건 이와 같이 市場占有率이 크고 서울市民의 利害에 가장 密接한 이른바 類似都賣市場을 非法定市場이라 하여 法그를 밖에 放置하여 갖가지 不條理行爲를 正當化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한번쯤 當局은 省察해 봄직하다.

현재 龍山市場에 있는 4個市場 즉 서울靑果(法定), 龍山共販場(農協), 邦鎮, 太陽(類似) 市場에서 부과되고 있는 各種料率을 보면 도매 시장手數料, 上下車費, 仲買人手數料 그리고 各種稅金을 합해 法定都賣市場에서는 13~15%, 農協共販場이 10.2~12%, 그리고 非法定類似市場에서는 10.8~13%가 發生하고 있다.

競賣에 의한 販賣는 서울靑果(과일부만)와 農協共販場만 行하고 있는데 이상의 料率體係와는 반대로 搬出農民에게 돌아가는 競落價는 外見上 類似都賣市場이 제일 높고 農協共販場이 제일 낮은 奇現象을 보이고 있다. 類似都賣商이 繁盛하고 있는 까닭인즉 첫째 類似市場의 경우 小賣市場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去來對象者(賣方 및 買方)에 대한 課稅資料의 提出義務가 없다. 그리하여 물건을 가져오는 搬出商에 대한

0.6% 附加稅金이 누락되고 仲買人(도매인)에 대한 0.4%의 附加稅가 경감되며, 물건을 사가는 小賣商의 去來資料를 밝힐 必要가 없다. 둘째, 이들 類似都賣商은 年平均 1人當 1,400萬원 以上の 先渡資金을 產地農民들에게 3~6個月 동안 無利子로 살포하고 있다. 金融의 길이 좁은 生産農家로서는 一見 대단한 도움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진 빚을 物件(청과 채소류)으로 갚으면 되고 一見 값도 他市場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의 人間的인 각종 서비스와 待接을 받는 利點이 있다. 물론 金利費用은 어떤 形態로든 回收되는 것이 資本의 生理이지만 최소한 外見上으로는 無利子임에 틀림이 없다. 셋째 이들 類似都賣商人들은 同種 營業經歷이 平均 12~13年으로 청과채소류의 數百가지 品目的 產地, 生産農民 그리고 下部 小賣商 狀況을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이 환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광대한 小賣網組織과 連結되어 있다.

서울 各都賣(靑果)市場內에서의 各種 貢課金

각종료금	中央都賣市場	農協	類似都賣市場
名目上場手數料	6.5~7.0%	6.0%	8.0~10.0%
實質上場手數料	5.4~5.9%	4.5~6.0%	8.0~9.0%
下車料 (搬出商負擔)	1.0%	1.0%	1.3%
中買人手數料 (小賣商負擔)	4.0%	4.0%	(0~3.0%)
上車料 (小賣商負擔)	1.2%	1.2%	1.5%
附加稅(搬出商)	0.6%	면제	무효
附加價値稅 (仲買人)	仲買人手數 料의 10%	仲買人手數 料의 10%	無
所得稅(小賣商)	所得의 6.5%	所得의 2.0%	所得의 7.5%

註1) 非公式調査에 의하면 類似都賣市場에 관련된 靑果物 仲買人의 경우, 商品에 따라 10~20%의 마진으로 運營됨.

資料: 金成勳, 現地調査, 1978

그러나 이들 類似都賣商들이라 해서 繁昌하고 事業이 旺盛한 것만은 아니다. 앞서 든 1人當 1,400餘萬원의 先渡資金放出의 資金소스를 보면 대개 40% 內外가 私債로서 月 4~5%의 利子를

물고 있으며 前渡資金의 24%는 恒時 未收金으로 남아 있다. 단골小賣商들에 대한 外上額도 도매상 1人當 3~400萬원으로 널려 있어 항상 金融上 큰 위험을 안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 나진, 태양의 市場主는 실제에 있어 建物 및 場所의 賃貸主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小賣市場으로 허가권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建坪 한 坪當 보증금 15~20萬에 月貫 5,000원 이상 高率賃貸料를 이들 類似都賣商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다. 시설이라 했자 낡은 半칸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취급물량에 비하여 市場이 협소하여 자동차로 비좁은 市場을 貫通하는데 흔히 1時間이상이 걸릴 정도이다.

去來商品은 제대로 包裝이 되어 있지 않고 等級과 規格은 일부 高價品을 제외하고는 멋대로이고 容器도 不均一하다. 예를 들어 배추가 농민의 손을 떠나 消費者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밭(筆地)채 거래되고 상인손에 가마니, 짐 또는 관으로 넘어가고, 소매상과 소비자는 포기, 다발 또는 個數로 去來한다. 유독 신문지상과 라디오에서는 kg 그것도 3.75kg으로 時勢를 알려주고 있다. 等級도 中品이라 해서 과연 客觀的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報告者나 去來者의 主觀的인 判斷일 뿐이다. 게다가 龍山都賣市場內에는 이렇다할 時勢廣報 標識板하나 없고 거래시세도 제대로 放送하지 았기 때문에 바로 옆 商會 또는 市場의 時勢가 서로 엄청나게 틀리기 일수이다. 농협에 떠맡겨진 市場情報業務는 自體內의 조직에도 그 效率性이 의문시 될 정도이다. 輸送 및 去來中의 損失은 莫大하다. 調査한 바에 의하면 배추, 수박은 약 15%, 복숭아, 포도는 약 5%가 商品價値를 잃어 損失品化하고 있다. 龍山市場에서 한창 盛需期에 하루 쓰레기로 내버리는 청과 채소류는 太

陽市場의 경우만 平均 15~20臺트럭분이라 한다. 그리고 龍山園地內에서의 上下車 및 物品정돈業務는 勞組에 의해 獨占遂行되고 있는데 過大한 遊休人員으로 인한 費用遞增現象과 간헐적인 怠業 그리고 近代의 操作施設의 導入지연, 나아가서 실제 2%를 上廻하는 上下車 및 정리비율도 유통효율에 적지않은 장애아닌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주요 淸과물의 生産者受取 및 消費者 價格 格差는 品目에 따라 27%~63%에 이른다. 이것은 價格마진에 不過하면 品質과 量的損失도 相當하다. 특히 等級(質)面的 마진 流通損失은 莫甚하다.

1976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배추	무우	참외	마늘	고추
가 격 마 진	50.7	59.6	27.0	62.9	53.3	49.4	60.7	35.1	25.7
물 량 마 진	n.a	n.a	n.a	5.0	18.5	16.3	5.0	5.0	8.0
질 저 마 진	10.5	15.0	11.9	13.8	10.0	15.2	21.5	5.0	10.8
유통 손 실	1.0	5.0	1.0	5.0	5.0	15.0	15.0	15.0	0.2

資料 : 農協, 農水産部 實態調査 및 現地調査, 金成勳 1978

V. 靑果物의 需要豫測과 對備

아직까지 서울 一圓의 채소류와 과일류에 대한 정확한 需要現況의 파악은 고사하고 將來 需要에 대한 豫測作業도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筆者는 최근 IBRD 評價팀에 대하여 이 分野의 投資妥當性을 說明해 주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어 다음과 같은 假定下에 淸과물에 대한 總需要 豫測과 市場流通量推定(市場設備需要)을 試圖하여 보았다.

서울市의 人口는 1977年 現在 750萬이며 城南, 議政府, 安養, 始興의 人口는 약 83萬으로서 과거의 추세에 입각할 때 장차 다음과 같이 증가 될 것으로 展望되었다.

서울 및 近郊의 人口增加 豫測 單位 : 千名

區分	1977	1981	1983	1986	1991	1996
서울	7,526	8,471	8,813	9,353	9,831	10,333
江北	2,633	3,388	3,701	4,209	4,915	5,433
江南	4,893	5,083	5,112	5,144	4,916	4,900
近郊	827	989	1,063	1,188	1,368	1,575
計	8,353	9,460	9,876	10,541	11,199	11,908

그리고 서울 市民의 淸과류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性值를 채소류의 경우 0.51, 과일류는 1.02로 보고 基準年度의 1人當 消費量을 채소의 경우 93.4kg(전국平均) 내지 127.3kg(서울平均), 그리고 과실의 경우 18.6kg(전국平均) 내지 25.3kg(서울平均)을 기준삼아 장차 채소류 소비는 年平均 3.0~4.1%씩 과일류는 6.8~8.2%씩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總需要量中 市場通過量(market throughput)¹은 1986年까지 65%, 1991年까지 70%로 推定하였다. 이에 따른 서울市 一圓의 채소 과일류 總需要量과 市場設備 所要量은 다음과 같이 計測되었다.

區分(千톤단위)		1977	1981	1986	1991
채 소 류 (수요량)	최소치	780	1,037	1,342	1,598
	최대치	1,063	1,413	1,829	2,078
과 실 류 (수요량)	최소치	155	241	374	536
	최대치	211	327	506	722
淸과물합계 (수요량)	최소치	935.5	1,436	1,716	2,135
	최대치	1,274	1,740	2,335	2,800
淸과물市場通過量 (최소치)		556	830	1,050	1,495

資料 : 金成勳, 서울도매시장 타당성分析, KDI, 1978.

즉 1981년에 가서 채소는 최소 1,037千t에서 최대 1,413千t이 需要될 것이며 과실은 241千t에서 327千t 사이를 需要할 것으로 보인다. 그후 5年後인 1986年代엔 채소가 1,342千t에서 1,829千t 사이를, 과일이 374千t에서 506千t 사이가 需要될 것으로 展望된다. 바꾸어 말하여 전체 靑果物 需要展望은 1981年 경우 總 1,436千~1,740千t, 그리고 1986年엔 1,716千~

2,335千t臺를 오르내릴 것이다.

그런데 現在 협소하기 이틀데 없는 2個의 法定 都賣市場과 4個의 農協共販場, 그리고 11個의 類似都賣市場 施設의 總容量을 모두 합해보아야 年間 60萬t 以上の 取扱能力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바로 눈앞에 닥치고 있는 1981年代의 서울地區 豫想需要量의 35~42%의 物的 流通施設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예상되는 都賣市場의 流通混亂은 갈수록 深化된 展望임을 直視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農水產部는 現在 세계은행(IBRD) 借款으로 永東地區에 年間 54萬t을 取扱할 수 있는 새 都賣市場을 1981年 목표로 建設코져 하고 있으나, 그것이 現在 龍山市場團地에 있는 4個 大市場의 移轉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이어 1986年경엔 江北地域(예컨대 정량리-천호동)에 또하나의 大單位 市場을 設立해야 하고 1990年代엔 영등포 江西地區에 새로운 大市場이 設立되어야 한다고 본다. 萬若 미리 効果의으로 對處하지 않으면 1986年代以後 서울市民에 대한 新鮮食料品의 安定的인 供給에는 뜻하지 않은 混亂이 加重될 것이 豫想됨으로 미리 行政當局과 서울시當局의 覺醒과 奮發을 促求하는 바이다.

註1) 1977年 현재 서울 총소비량중 市場通過量은 59.5% 이 있음.

VI. 몇가지 提言

長期的인 眼目的 需給安定과 物價安定을 위한 流通近代化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流通構造의 기본과제들이 解決되어야 한다.

- ① 新鮮食料品의 원활한 擴大供給을 실현하기 위한 流通行政體系의 確立

② 물가억제 및 規制一邊倒의 流通施策으로부터 助成政策 위주로 政策轉換

③ 農產品流通의 대형화, 廣域化, 迅速化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성력화와 物的流通施設 (P. D. pipe line)의 확충 및 流通構造의 改編

④ 商業資本의 近代화와 民間流通機關의 육성 활성화(流通商人 中心)

⑤ 段階의으로 現實의인 農產物 標準化制度의 實施와 市場情報機能의 擴充(특히 產地와 消費地의 거래단위, 도량형 규격부터 현실 화하고 통일함)

⑥ 公正去來秩序와 流通行政體制確立 및 從事者教育

위와 같은 流通近代化施策의 基本課題를 원활히 解決하기 위한 基本的인 政策措置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主要事項을 들 수 있다.

1. 產地, 中繼地, 消費地等 모든 流通段階와 政府 및 民間의 모든 流通機關을 망라한 舉國의 차원의 流通近代化 計劃 및 改革運動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2. 物價當局의 姑息의인 市場機構介入 政策과 단기적 價格抑制措置는 農產物 生産 및 가격형성의 특성에 비추어 오히려 長期 均衡을 훼손함으로써 만성적인 物價波動의 原因이 되고 있다.

年間 10%라는 物價上昇 抑制目標을 農產物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1年單位로 策定하여 年中 고정가격에서 일률적으로 抑制하려 함은 農產物 生産 및 價格變動의 週期性(例, Corn-hog Cycle; 배추, 고추, 돼지등의 隔年別 價格振幅)과 季節的으로 일시에 出荷되는 農產物에 대한 불가피한 貯藏, 保管, 費用의 發生事實에 비추어 무모한 政策措置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物價當局은 農產物 價格安定計劃을 執行함에 있어서 최소

2~3年 단위의 生産 價格關係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며, 계절성을 고려한 저장, 보관, 비축시설에 대한 投資擴充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一定期間에 出荷가 集中되고 있는 채소 과 일류와 같은 新鮮食料品은 정책적 經濟指標인 都賣 및 小賣物價指數에서 獨立시켜 別途로 獨自의인 指數를 計測 活用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西獨이나 日本, 英國등에서 보듯 季節의 腐敗變質性 農産물의 特性을 살려 別個의 指數體系下에 價格 및 需給安定計劃을 中長期性 支援計劃을 가지고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現行 流通機構 및 市場施設을 整備 擴充하여 流通費用을 節減시킬 것이며 特히 각 流通段階別 現行 市場 手數料와 各種 公課金 및 租稅를 대폭적으로 下向 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水産物의 경우 서울 都賣市場 한 곳에서만 搬出商人이 부담하는 각종 手數料와 荷役費가 14% 内外이며 거기에 仲買人의 마아진과 小賣人의 諸費用 및 마아진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5. 청과물市場을 完全競爭市場化하는 기초작업으로서 農産物의 標準化制度를 現實情에 맞게 대대적으로 強化 改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한 農産物(예컨대 배추)이 農民의 손을 떠나 消費者 食卓에 오르기까지 去來單位(이랑, 포기, 관, kg, 斤 등)가 多樣하고 去來容器(가마니, 포대, box, 날개 등)가 각각이며, 地域에 따라 去來機關에 따라 品質(等級)評價와 規格(크기)評價의 基準이 서로 相違하여 去來上의 統一된 言語(communiation)가 틀리고 價格報道와 市場情報가 無意味한 實情이다.

이와 같은 非標準化된 商去來體制에 있어 生産者와 消費者 共히 損失을 보게 마련이며 一部商人 또한 손해를 부분적으로 겪게 마련이다.

6. 市場情報와 價格情報를 대폭 改善하여 全

國 市場圈을 최대한 完全競爭市場化 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난 6月 9日 現在 남대문 市場에서는 배추 한포기(1貫分)에 700원에 去來되고 있었으나 驛村市場에서는 900원, 그리고 다른 번두리 市場에서는 1,000원을 呼價하고 있는 反面 生産地 農民受取價格은 400원을 下廻하고 있었다. 현재 市場情報는 部分的으로 農協과 商工會 議所가 선택된 농촌 및 도시 地域에서 수집 발표하고 있으나 標準化의 不備로 그 신빙성은 且置하고라도 그 결과의 普及傳達 미디어와 方法의 不完全으로 실제 큰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7. 產地出荷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組織化하여 출하단계에서 부터 選別, 規格化, 等級, 包裝등이 표준화되도록 生産農민의 指導를 강화하고 支援조직을 행한다. 그와 아울러 소비자의 大消費處 또는 小賣商과의 直結體制를 권장한다. 서울의 경우 班常會조직을 消費團體化할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類似 도매시장은 과감히 實現化하되 施設 및 運營合理化에 대한 稅制, 금융상의 支援策과 더불어 體系的인 감독검사기능을 수립해야 한다.

8. 農水産物 流通關係部處間의 權限과 責任限界를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즉 ① 農協은 產地出荷整備 및 組織化, ② 農水産部는 中繼地 都賣機能 육성 및 流通機能의 정상화, ③ 商工部는 消費地 農水産品 小賣機能 近代化, ④ 內務部 및 地方自治團體는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과 流通秩序維持, ⑤ 建設部는 國土計劃과 都市計劃에 시장입지의 우선고려, ⑥ 經濟企劃院은 長期投資計劃의 종합조정과 豫算支援, ⑦ 財務部는 유통상의 稅制 및 金融支援措置, ⑧ 保社部는 食品위생검사 및 단속등으로 區分할 必要가 있다.